

11/20/16

설교 제목: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신명기 32:1~20

- (신 32: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절관주** 시 50:4, 사 1:2
- (신 32: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 (신 32: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 (신 32:4)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 (신 32: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빼돌어진  
세대로다
- (신 32:6)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이여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 (신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 (신 32:8)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 (신 32:9)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 (신 32: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 (신 32: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 (신 32: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 (신 32: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굴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절관주** 욥 29:6
- (신 32:14) 소의 영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신 32:15)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매 발로 찻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 32: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 32: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 32:18)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신 32: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신 32:20)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유언 중 앞 부분입니다.

추수 감사절 예배에 유언을 본문으로 택해서 의아하시지요?

유언에는 자손들이 꼭 알아야만 하고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험한 세상에 남겨져 모든 풍파를 헤치고 살아내야만 하는 자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쓸데없이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손들도 유언만큼은 꼭 지킬려고 노력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없이 저들끼리 남겨져 살아야만 하는 사랑하는 자손들의 미래가 염려됩니다.

출애굽 이후로 40 여년을 그들과 동고동락 했던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성향을 잘 압니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신이 지도자로 우뚝 서서 버티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자신마저 떠나가면 이들이 오죽하랴 싶어 마치 우물가에 아이를 놓아 두고 가는 것같이 노심초사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측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40 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하느라 미운정 고운정 다 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후손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의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를 걱정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 전부터 7 개 종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들은 땅이 비옥했던 연유로 삶이 풍족했으며 이미 자신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 년을 노예로, 그 후 40 년을 광야에서 방랑자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풍요와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는 것이 당연한 다음 수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신들을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주시고 출애굽시키셨으며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오늘날까지 하시고 결국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할 것을 이미 훤히 알고 있었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1-4 절)은 서론 부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분의 공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교훈합니다.

둘째 단락(5-14 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시며 온갖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15-20 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교한 결과 얻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신 32: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유언을 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신 32: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지금부터 모세가 말하는 교훈은 비나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것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연한 풀 위에 내린 가는 비 같이, 채소 위에 내린 단비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불려 일으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 32:3) 내가 여호와와 이름의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전파하리니 (카라:קרא)'라는 말은 '부르다, 찬양하다'는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기 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의 전파하고 찬양할 때 백성들도 화답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신 32:4)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리고는 순종에는 생명으로, 불순종에는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 32: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흙이 있고 뼈뿔어진  
세대로다

(신 32: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여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와 광야 40 년 생활, 가나안 입성 등등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득한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어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마음 속 깊이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고 지혜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과  
율법을 주어 가나안 땅을 상속할 후사로 준비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다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고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신 32:8)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 32:9)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세상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 땅을 정하신 뜻대로 나누어 주어 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수효대로 적합하게 분깃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놓은 하나님이 소유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신 32: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신 32: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신 32: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 32:14)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동안 어떻게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신 32:15)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매 발로 찢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 32: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 32: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 32:18)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수론이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 배은망덕 하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신 32: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신 32:20)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신 것과 똑같은 잣대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바보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마냥 좋다고 허허하며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십니다.

공의를 가지고 사랑의 매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 택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유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따져 보고 택할 만하다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 오늘까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나운 짐승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해하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여 주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은 약 일주일이면 갈 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 년이나 광야에 머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0년 노예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몸에 체질적으로 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노예적 근성을 그대로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연단과 훈련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또 감사함으로 견디어내야 합니다.

4)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즉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우리와의 약속도 기억하시며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배로, 풍성한 예물로, 올바른 성도의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